

# 가족관계 형성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in a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 터 장 장흔성\*

Gumi cit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Head* Jang, Heun-S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교육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 조사 | 참고문헌             |

## 〈Abstract〉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South Korea has seen a sharp rise in interracial families. South Korean society faces various difficulties since it has not prepared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itiate marital education for th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healthy and democratic way. This researcher has developed a 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this work required the investig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Gyeongsangbuk-do.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improve conjugal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a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 to help those families to settle down early. The program consisted of four steps and 12 sessions. It featured an increase in application flexibility to an actual site by session, and includes a worksheet applicable to an actual site to understand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families during a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 In so doing, it was designed to easily perform nonverbal education. This wor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in

\* 주저자: 장흔성(agm0575@hanmail.net)

conjugal rel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a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 and help those families to settle down in a stable way.

Key Words : 다문화가족지원센터(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부부교육프로그램(couple educational program), 가족관계형성기(the formative period of family relationship)

## I. 서론

19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20여년이상 지속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의 이주이며, 이것은 한국 내 국제결혼의 증가현상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국제 결혼률은 전체 결혼 10건 중에 1건의 비율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자료, 2011)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 온 경우는 전체 국제결혼 가족의 89.2%(행정안전부, 2011)를 차지한다.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문화배경이 상이한 집단과의 충돌로 인한 사회구성원으로서도 혼란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부부는 결혼, 출산, 부모역할 등의 가족의 발달주기 변화에 따라 혼란과 난관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은 결혼을 통해 탄생되며, 가족의 형성기인 초기 부부기, 확대기인 자녀 양육 및 교육기, 축소기인 후기 부부기로 구분된다. 가족관계형성기 부부는 신혼기에 속하며, 확대기는 자녀의 출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세분화된다. 축소기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한 이후 부부만이 남게 되는 시기이다(유영주, 1998). 이렇게 가족은 부부로부터 시작하여 부부로 끝나는 하나의 생활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시작되므로 부

부간의 원만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족도 보통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발달주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발달한다. 동시에 다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하여 언어와 음식, 생활양식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체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가족형성기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 제시된 다문화가족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특히 가족관계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형성기의 다문화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기초 관계형성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결혼과정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발생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주류문화에 속한 한국인 남성들과 가족들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언어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통의 한계와 문화이해의 어려움으로 등으로 야기되는 소통부재는 심리적 불안감, 신뢰감 상실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강기정, 2009),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족의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전체 52.9%에 해당한다.(강기정, 2011) 현장에서 살펴본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한국내의 생활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결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친정에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넷째, 가부장적문화로 남성중심의 관행의 가족 문화이다. 이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한국문화의 일방적 적용에 어려움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상호 소통의 노력과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 더 나아가 가족전체에 적응의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가족 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부부교육이 요구되지만 현실에서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의 이혼이나 사별 등에 의한 가족 해체가 증가하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1년 경상북도의 혼인비율은 전년대비 12.9% 감소한데 비해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경상북도 다문화가정의 부부 이혼율(8.7%)은 전국(10.1%)보다 낮은 수치지만 이혼 증가율(4.8%)은 전국(3.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 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양성 평등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경북에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통계에서도 이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북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하여 가족 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건강성 증진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가족 형성기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교육프로그램개발이 그동안 부족했던 배우자 입국연수에 따라 언어, 문화차이 인식차이 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다문화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실제 57만 명(2011)에 이르는 다문화가족들의 가족 형성기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이 영위되기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관계형성기 다문화가족 부부의 현실

가족관계 형성기를 결혼 시점부터 첫 자녀출산까지로 본다면 2012년 현재 3년 이내 국제결혼 건수를 통해 가족형성기의 다문화가족 수를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 중 국제결혼 건수를 따르면 2009년 33,300건, 2010년 34,235건, 2011년 29,762건으로 2012년 현재 3년 이내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97,297쌍이다.

다문화가족 부부에 있어 가족관계형성기는 다문화가족의 이후 가정생활(부부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가족관계형성기에는 문화와 언어가 동일한 내국인이 혼인을 하여도 초기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한다. 가족관계형성기의 다문화 가족은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고 서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과, 미처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남편도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다문화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형성기에 있어 추가적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 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보다 세심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하여 연구기관(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해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sup>1)</sup> 2011년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10.1%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1년 혼인비율은 전년대비 12.9% 감소한데 비해 이혼 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자료, 201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서비스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들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내국 인간의 결혼에도 일정기간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통한 결혼도 부부간 갈등이 발생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나 상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언어적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형태는 갈등이나 가정체체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동일문화권인 부부들도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요구되고 서로의 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질적인 문화 환경에 노출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경험(김오남, 2006)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초기의 갈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

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김희진, 2005) 배우자가 가진 일상생활 방식과 습관, 삶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부부 역할분담, 가족규칙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결혼지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발생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다. (설동훈 외, 2005)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결과로 별거나 이혼을 하기 보다는 한국 남성이 ‘가부장’의 특권으로 행사하는 권위 의식이나 폭력, 무능력 등이 결혼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한국 남편들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 여성이 편입되자마자 대화나 감정의 교환을 통한 친밀성 형성이 아니라 위계적인 성역할에 입각한 부부관계만을 요구하는 경향(이은주, 2007)을 가져 애정 중심의 가족관계와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며 성장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류문화에 속한 한국인 남성들과 가족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혜정, 2007).

세 번째는 언어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통의 부재이다. 새로운 환경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언어적 어려움(Hovey and Mogana, 2000)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갈등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문화이해의 어려움, 소통의 부재, 신뢰감 상실 등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경제적 갈등이다. 경제적 갈등은 다문화 가족만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문화부부의 경우 현실 생활에서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아내의 모국에도 정기적인 경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확산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의 출

1) 2009년 조사된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건수 대비 9.4%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연평균 2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2011)

발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부갈등영역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문제시 되어왔다(이명자, 200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부부도 일반적인 가정의 부부가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점과 국제결혼가족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부부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배제된 국제결혼 형태의 문제점과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언어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 다문화 가정의 친정 송금 등의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은 일반적가정의 부부교육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각 국의 문화적 차이, 부부간의 소통에 있어 비언어적 소통으로 상대방을 이해 할 수 있는 내용,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가족 범위의 인식 차의 문제를 해소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족형성기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

결혼생활의 질은 다른 인종 간 부부와 같은 인종 간 부부가 의미 있게 다르지 않다(Charm, 1997; 이은주, 2007)는 자연법칙에 따라 부부간 상호이해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부부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강복정 외, 2008).

국내에서 실시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1990년 이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서비스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공되기 시작(이은주, 2007)했는데 주로 한글 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교육, 취업관련 교육 등에 한정되었다. 2003년부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지만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전체를 포괄하기 보다는 여성결혼 이민자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증진에 한계를 보였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철학적 배경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경우는 드물었고(권수정·전영주, 2007),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요인들은 강화하고, 부정적 요인들은 수정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되고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들은 건강가족 관점과 가족향상의 관점에서 개발되어 부부의 문제해결보다는 부부의 장점과 강점을 지지하고 잠재력 개발과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부부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최규련, 2003) 진행된다. 부부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연구된 프로그램의 하나인 미네소타 부부의 사소통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부부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부가 가진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한 후 부부간 대화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uerney(1977)에 의해 개발된 RE(Relationship Enhancement) 프로그램은 Rogers의 인간중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부부의 공감적, 일치적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Rogers(1961)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내가 가진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수적이고,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비해 의사표현과 공감양식에 있어 실제상황에 적용하는데 더욱 유용함을 가진다.

부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관계성 이론의 적용도 가능하다(조혜선, 2003; 박형식, 2006; 김숙경, 2008). 관계성 이론은 과정과 맥락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부부관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와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결과 같은 과정적이고 맥락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조혜선, 2003).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는 부부가 가진 단점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부부의 강점을 평가하여 성장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는 강점중심의 페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가족탄력성 이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탄력성이란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능력,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최정숙, 2008)으로 어떻게 실패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이은희·구정화, 2009). 탄력성이론은 긴장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언어능력 및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취약성을 지닌 다문화 가족에게 긍정적 시각과 희망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과 배우자 프로그램 매뉴얼(보건복지부, 2008) 발간하였고,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모성장 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08) 등을 발간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급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는 가족통합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의사소통교육 2시간, 배우자교육 4시간, 아버지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각 영역별 10시간을 권장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의 특성인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몰이해에서 오는 문제 등 다문화가족들이 안고 있는 내밀한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은주(2007)는 기존에 개발된 비다문화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부부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손진이·백경임(2008)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 및 요구에 부합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되기 위한 준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9)은 결혼지속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의 문제점과 원인을 부부가 스스로 깨달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잠재된 가족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연수(2010)는 가족탄력성을 기반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족관계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년 수가 짧은 연유로 인해 한국사회에 단순 적응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내밀하고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어야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이주배우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형성기 가족부부교육프로그램은 양국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이해교육과 언어소통 부재에서 오는 갈등해소 방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단위보다는 가족구성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아내, 다문화가족의 남편,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 가족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국한되거나 가족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손진이·백경임, 2008).

둘째, 가족체계라는 점에서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하나 다문화가족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활용하였던 비다문화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유명

숙, 2010; 소병숙·정혜정, 2009).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형성기에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은 다문화부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상대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 주차별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이 가진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1박 2일의 캠프형 또는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캠프형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집중적 진행으로 부부의 흥미와 즐거움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녹여내야 하는 부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기존 개발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인 국제결혼부부교육 프로그램개발(여성가족부, 2005)과 같이 입국 년 수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부부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은 되었지만 입국 초기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비언어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고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몇몇 시군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국제결혼부부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 부모성장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0)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부부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현실적 상황으로 주기에 따른 가족교육을 실행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1회성 또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관계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언어적 소통 한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장 실행 형 비언

어적 체험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경북지역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적·정서적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들에게 부부교육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연구 중심보다는 현장의 부부 소통을 용이하게 개발되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족부부교육 프로그램들은 부부관계에서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문화적 특성을 어느 정도 접목시키는가, 교육의 대상을 누구로 규정하는가, 부부교육의 내용으로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가 등이 프로그램 내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초점이 결혼 년 수 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부부교육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적었다는 점은 차후 개발되는 부부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 Ⅲ. 교육대상자 특성 및 요구도 조사

#### 1. 조사개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여성이민자와 남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북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지역에 속하고 가부장성이 타 지역보다 강해 양성 평등적인 가정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심층조사의 내용들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결혼에 이르게 된 배경 및 동기, 결혼생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이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	성별	출생연도	출생국가	결혼연도	최종학력	한국어	직업	결혼만족도	자녀수	지역형태	비고
1	여	1986	베트남	2006	대학재학	상	학생	95	1	도농복합	사례1 아내
2	여	1975	인도네시아	1998	대학재학	상	통번역사	80	0	도농복합	사례2 아내
3	여	1963	필리핀	1991	대학중퇴	중	주부	90	3	도시형	사례3 아내
4	여	1985	중국한족	2008	고졸	중	공공근로	80	1	도시형	사례4 아내
5	여	1989	필리핀	2010	전문대졸	하	주부	50	1	도농복합	사례5 아내
6	남	1971	-	2010	고졸	-	버스기사	100	1	도농복합	사례6 남편
7	여	1974	중국조선족	2003	전문대졸	상	방문지도사	98	2	도농복합	사례7 아내
8	여	1986	캄보디아	2007	고졸	상	통번역사	80	2	도농복합	사례8 아내
9	여	1970	중국조선족	1995	대졸	상	통번역사	80	2	농촌형	사례9 아내
10	남	1966	-	1995	고졸	-	회사원	90	2	농촌형	사례10 남편
11	남	1970	-	2006	고졸	-	회사원	90	2	농촌형	사례11 남편
12	여	1967	일본	1999	전문대졸	상	일본어강사	90	1	농촌형	사례12 아내
13	여	1979	베트남	2006	고졸	하	전업주부	50	0	농촌형	사례13 아내
14	남	1976	-	2006	-	-	특수경비직	80	0	도농복합	사례14 남편
15	여	1989	필리핀	2008	고졸	하	서비스업	50	1	도농복합	사례15 아내
16	남	1979	-	2008	전문대졸	-	계약직 공무원	70	1	농촌형	사례16 남편
17	여	1985	베트남	2007	전문대졸	상	전업주부	70	2	도농복합	사례17 아내
18	남	1969	-	2007	고졸	-	자영업	80	1	농촌형	사례18 남편
19	여	1972	태국	2003	대졸	중	전업주부	85	2	농촌형	사례19 아내
20	여	1982	중국조선족	2005	고졸	상	전업주부	80	2	도농복합	사례20 아내
21	남	1960	중국조선족	2004	고졸	-	무직	80	1	도농복합	사례21 남편
22	여	1983	중국한족	2006	대학재학	중	전업주부	80	1	도농복합	사례22 아내
23	여	1986	베트남	2004	중졸	상	농사	50	2	도시형	사례23 아내
24	남	1967	-	2004	중졸	-	농사	50	2	도시형	사례24 남편
25	여	1969	베트남	1998	고졸	상	전자조립	20	2	도시형	사례25 아내
26	여	1983	베트남	2006	고졸	상	전업주부	90	2	도농복합	사례26 아내
27	남	1962	베트남	2010	대학중퇴	중	농사	80	1	도농복합	사례27 남편
28	여	1981	중국단둥	2005	고중퇴	상	전업주부	80	1	도농복합	사례28 아내
29	여	1980	베트남	2008	대졸	하	전업주부	90	2	농촌형	사례29 아내
30	남	1972	-	2010	고졸	-	농업	95	0	농촌형	사례30 남편
31	여	1981	베트남	2010	고졸	하	농업	90	0	농촌형	사례31 아내
32	남	-	-	2005	고졸	-	자영업	무응답	3	농촌형	사례32 남편
33	여	1981	중국한족	2005	고졸	상	통번역사	20	3	농촌형	사례33 아내
34	남	1969	-	1999	고졸	-	농사	70	2	도농복합	사례34 남편
35	여	1979	필리핀	1999	대졸	중	영어강사	60	2	도농복합	사례35 아내
36	남	1968	베트남	2006	대졸	중	펜션운영	60	1	농촌형	사례36 남편
37	여	1979	필리핀	2000	대학중퇴	상	전업주부	100	3	도농복합	사례37 아내
38	여	1979	필리핀	2005	대학재학	상	영어강사	80	3	농촌형	사례38 아내
39	여	1984	베트남	2006	고졸	상	통번역사	60	1	농촌형	사례39 아내



심층면접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방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선정하는 스노우볼 (snowball sampling) 형식을 채택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한 지역 또한 경상북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 형으로 나누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면접대상자들을 지역별과 성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여성은 26명, 남성은 13명으로 총 39명(포항 1명, 구미 5명, 경산 2명, 상주 4명, 문경 4명, 칠곡 7명, 영천 2명, 예천 8명, 의성 1명, 청도 3명, 영덕 1명, 울진 1명)이다.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 기대감, 배우자와의 결혼 경로와 결혼과정, 결혼 전과 후의 차이점, 부부생활의 어려운 점, 부부갈등 시 해결방안,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부부생활에서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2012년 4월 10일 ~ 5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과 녹취록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면접시간은 한 사람당 대략 40분~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면접 조사내용으로는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 결혼전후의 차이점, 자국의 남자와 한국 남자의 문화적 차이점, 부부생활의 만족도 점수, 부부교육 욕구조사 부부 갈등 시 해결 방안,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것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을 한 남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하여 심층 면접하여 녹취하였다.

## 2. 조사 결과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성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지역형태, 성별, 출생국가, 연령, 결혼연도, 결혼 만족도, 직업, 배우자직업, 월 소득, 최종학력, 자녀수, 시댁거주, 한국어수준으로 나타내었다. 문항 중에서 출생국가와 한국어 수준에 관한 문항에서 남성은 응답기준을 배우자로 하였다. 이 조사는 가족관계형성기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의 전반적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 이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의 질문 시에 한국입국 후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응답자 26명 중 도농복합에서 42.3%가 응답하였으며, 30대가 50.0%이다. 출생국가의 경우는 베트남(34.6%), 필리핀(23.1%), 중국(26.9%), 기타(15.4%)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총 4명으로 그들의 출생국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 태국이다. 결혼기간은 6-10년 이하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가정주부(38.6%), 사무/기술직(통번역사 포함)(23.1%)의 순이며,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기술직(42.4%), 농업(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1-200만 원 이하(50.0%), 학력은 고졸 학력자(38.5%) 응답한 수가 많으며, 여성 응답자의 자녀수는 2명(42.3%)이 많았고, 시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69.2%로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결혼만족도의 점수는 평균 73점이며, 한국어의 수준은 상(61.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의 경우, 총 13명의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도농복합형인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의 응답이 46.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이는 여성들이 응답한 30대에 비해 다소 높은 40대가 66.6%로 많았으며, 배우자의 출생국가는 베트남(53.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기간은 여성들과 동일하게 6-10년 이하가 46.1%이며, 직업은 농업이 30.7%, 자영업과 사무/기술직이 23.1%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101-200만 원 이하가 46.1%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여성들의 응답과 동일하게 고졸인 경우가 58.4%로 많았으며,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46.1%,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53.8%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여성들보다 3점이 높았으며, 배우자의 한국어 수준에 수준은 상인 경우가 46.2%로 나타났다.

## 2) 가족관계형성기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제점

본 연구는 가족관계형성기의 다문화가족 부부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특히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 후 부부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생활방식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시부모님 부양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불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을 중복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론적 연구 인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호소하는 내용 중심으로 답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가정 생활의 어려움은 김오남(2006)의 한국남편관계에서 오는 갈등해소 어려움, 설동훈(2005)의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 이은주(2007)의 위계적인 성역할에 입각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어려움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1) 생활방식 어려움

생활방식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 베트남여성의 경우 아침을 집에서 요리하여 먹는 경우가 잘 없지만 한국에서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밥 때문에 생긴 오해가 가족체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남성들만의 모임이 잦은 한국 남편이 혼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부부 중심 문화(필리핀)에서 온 여성은 남편이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남편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문자로 인한 웃지 못 할 오해들도 발생한다.

-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문화적인 생활격차가 있는 것 같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사례 15, 19, 33, 35, 아내)
- 음식에 대한 차이로 문제가 있었다. (사례 15, 19, 33, 35, 아내)

한국과 일본만이 찰기가 있는 쌀밥을 먹고 대부분의 결혼이민 여성의 출신국에서는 찰기가 없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국초기에는 한국 쌀밥을 소화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바다가 없는 몽골은 생선이나 회를 먹지 않고 밥보다 빵이나 만두가 주식이기 때문에 식생활 문화차이의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는 마늘이 많이 들어간 한국음식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특히 외식문화가 발달한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한국은 외식이 특별한 날에만 하는 가족행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끼를 집에서 요리해야하는 한국 음식 문화는 결혼이민 여성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

-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으니까요. 전자제품의 발달수준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니까.. 사는데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집사람이 음식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한국 남성들의 사회생활 문화에 대해 잘 이

해하지 못하죠. 회식 등으로 귀가시간이 늦다거나 자주 모임 등으로 외출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례 14, 남편)

- 언어적인 것과 음식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가사 일을 재빠르게 하지 않아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아내가 아직 어려서 인지 나의 성적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례 18, 남편)

### (2) 의사소통 어려움

가족관계형성기의 다문화가족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작은 갈등도 확대되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배운 ‘가위’라는 단어를 경상도 시어머니는 ‘가시게’를 가져오라고 하여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갈등이 오는 등 초기 입국 이주여성들이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가정에서 일상적 언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례 1, 13, 17, 31, 37, 아내)
- 읽거나 쓰기는 가능한데 발음이 부정확하지 않아요. (사례 1, 13, 17, 31, 37, 아내)
-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부부생활보다는 한국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것도 많이 두려웠는데 씩씩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영어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례 37, 아내)
- 말도 안통하고, 집사람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사례 30, 남편)

### (3) 경제적 어려움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 한국 남편의 경제적 수준을 동일시하며 한국생활에 환상을 가졌던 결혼이민자여성이 현실과 차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본국의 원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개업자를 통해 들은 내용과 달리 한국 배우자의 직업과 경제적 지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상이하여 본인이 생존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 중매결혼을 할 때는 경제적 부분을 많이 보는데 돈 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넉넉한 집안은 아니라서 기대하는 만큼의 생활은 어려운거죠. (사례 2, 아내)
- 남편과의 문제는 없는데, 집이 작고 너무 불편하고, 시부모님들과 같이 살아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시부모님 때문에 많이 싸워요. 한국은 겨울에 너무 추워 씻지 못해서 불편해요. 남편이 돈을 많이 주지 않아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못해요. (사례 5, 아내) 대부분의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통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입국 후 이민 여성들이 품었던 한국과 본인이 처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경제적인 혼란도 잘사는 한국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희망했지만 한국내의 고물가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친정가족에게 송금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요원해짐에 따라 신뢰가 미처 생성되기도 전인 가족 형성기의 부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 처음에는 조심조심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안그래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는 자꾸 돈, 돈하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돈보다 ‘가정’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데. 다문화 결혼은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초반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

발이 많았어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 듣고 와서 하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례 28, 아내)

#### (4) 자녀교육의 어려움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기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 과정에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녀와 소통의 문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교육은 엄마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제도적 교육을 한국에서 받지도 못했고 한국의 사교육시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정보 역시 부족한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 가지는 자녀 교육의 부담은 매우 크다.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나 홍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정보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어와 서툴러서 자녀와 대화가 어려워요. (사례 8, 아내)
- 한국의 학교와 교육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사례 8, 아내)

#### (5) 시부모님 부양의 어려움

시부모님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잦은 간섭, 세대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한국이 며느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집안 대소사에 관한 일을 이주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 며느리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 이주여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의 시댁 중심의 문화가 이주여성들의 초기적응에 가장 높은 스트레스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유교의 종주국이지만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제사문화가 사라진 나라이다. 베트남의 남부지역에는 제사의 집전을 딸이 하고 모계중심의 가족문화가 발달한 나라들도 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밤이 아니라 오전에 지내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의 시댁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들로 인한 시부모와의 갈등요소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 제사 지내기가 어려워요. 겁이 덜덜덜 나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할게 뭐 있어 ! 하시면서 그냥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지 하세요. 빨리 빨리 안되요. (사례 9, 아내)
- 세대차로 인해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속상해요. (사례 3, 9, 15, 23, 아내)
-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조상 제사라고 하루 종일 전 굶고 밤늦게 까지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고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세대차도 있고, 사소한 문제로 부모님들과 갈등이 있다. 아내가 나의 다리를 타 넘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부모님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 없다고 하고, 아내가 '나'라는 말을 나에게 잘하는데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있었다. 아버님 성격이 엄격하시고 청력이 안좋으셔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거칠게 표현하면 아내는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해서 중간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 (사례 6, 남편)

#### (6)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응답자들이 생활방식 및 의사소통, 시부모님 부양 등의 어려움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에서의 어려움이었다. 남편의 무관심, 음주, 가사분담의 비협조 등이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특별히 폭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소통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한 마음과, 지식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으로는 성적인 문제, 남편의 무관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남편의 술이나 남편의 언어적인 표현, 가사분담 등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 남편이 무관심하고 부부관계에서 배려가 없어요 (사례 4, 12, 22, 26, 33, 38, 아내)
- 술을 많이 먹고 언어적 폭력을 쓸 때 무서워요. (사례 3, 9, 15, 23, 아내)
-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보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 자기도 편하니까요. (사례 12, 아내)
-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특히 성적으로 아내의 요구에 맞추기 어렵다. 매일 너무 피곤한데 아내의 요구에 맞추기가 어렵다. 아내의 행동이 너무 느긋하다. (사례 16, 남편)
- 좀 더 다정하게 이야기 해주었으면, 좀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 해주었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외국 문화라서 그런가 예의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쥐나도록 나요. 외국에선 다 그런가. 문화적인 차이죠. (사례 34, 남편)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부부생활에서 어려움의 형태가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얽혀있어 문제 해결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졌다. 가정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므로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들로 인해 생각나는 갈등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10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성격차이’ 30.4%, ‘경제적 무능력’ 17.4%, ‘외도’ 15.2%, ‘학대와 폭력’ 15.2%, ‘음주 및 도박’ 10.9%,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6.5%,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4.3% 순으로 높게 나타난 내용들이 본 연구에서 밝힌 부부간의 불만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어려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조사결과 가족관계 형성기 다문화가족의 문제점들은 생활방식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시부모님부양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대상자에게는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언어적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생활 방식차이의 이해 교육이 필요,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를 이해하는 교육 또한 요구되었다. 이러한 가족형성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비언어적 체험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연속적으로 부부교육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의 부부들을 위해 회기별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활용 용이한 시트지를 탑재하고 각국의 언어로 된 부부서약서와 다국어로 된 수료증 등도 수록하고자 한다.

## IV.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 1.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가족형성기에 알맞은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경북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생활방식어려움, 의사소통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시부모 부양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등 포괄성 6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기초조사에서 도출된 6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단계 12회기로 구성했다. 이 구성 안에는 경상도의 특성인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해소하는 젠더 중심의 교육내용과 일방적인 성문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 2. 프로그램의 특성

#### 1) 비언어적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한 비언어적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입국초기의 신혼기에 속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밀한 정서적 관계가 이루어져야하는 부부가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소통적 언어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매우 크다. 이들 부부의 소통을 위해서 현장에서 장기간 다문화가족과의 장기간 함께 해온 연구자는 비언어적으로 갈등관계해소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체험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 점을 착안하여 비언어 중심의 체험과 조작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개발하였다. 게임이나 만들기 등 실제 활동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언어적으로

소통하기에 쉽도록 구성하였다.

#### 2) 회기별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회기별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어떤 회기라도 순서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부부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남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직업들도 출 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부부교육을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회기의 연속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전 회기를 참석하지 못한 부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회기는 각각 독립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하였다.

#### 3) 현장 사용 가능한 워크시트(work sheet)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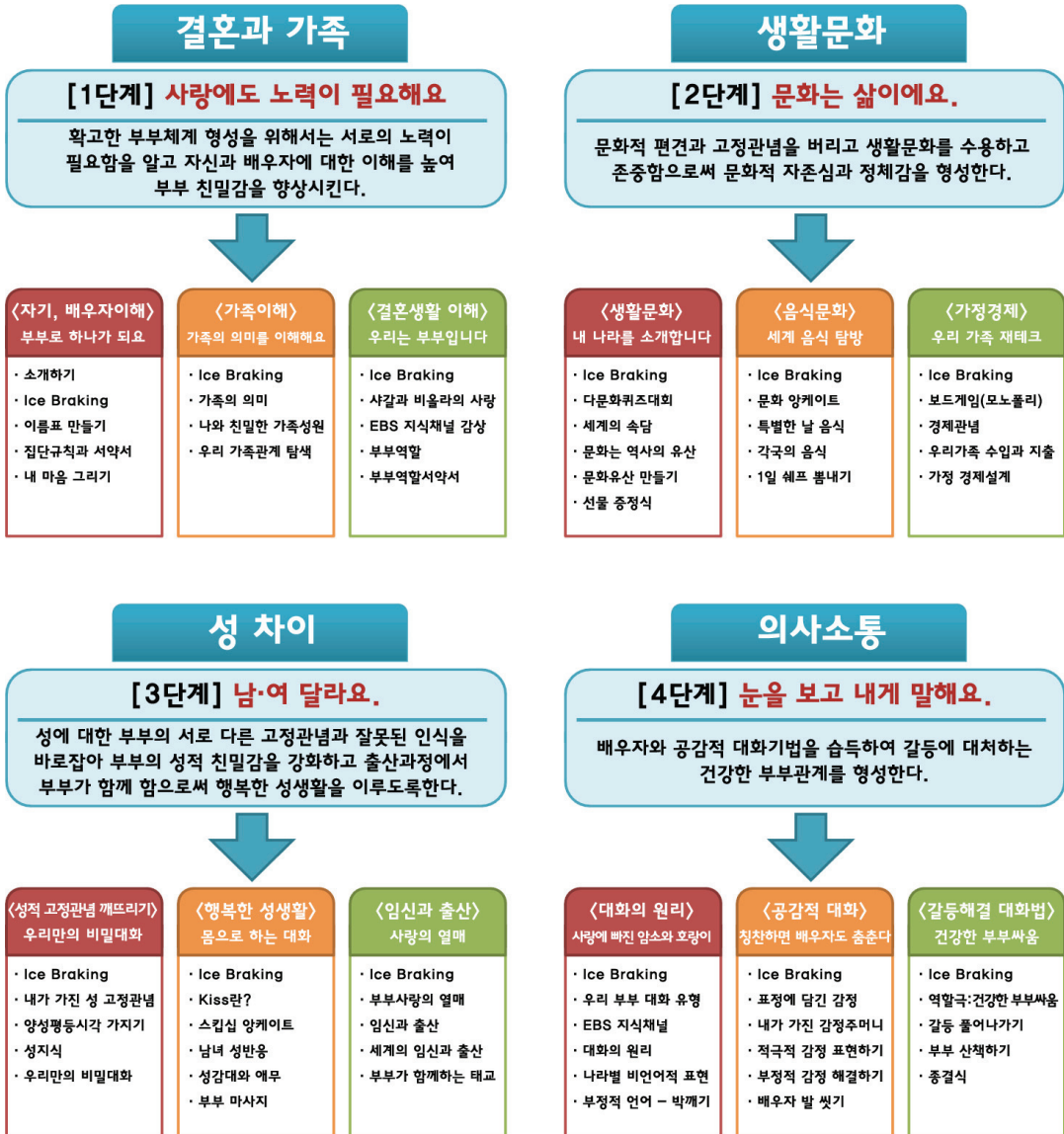
활동지를 복사하여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 편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워크북 형식의 활동지가 탑재되어 있어 곧바로 현장에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번역본을 쓰게 하였다.

### 3. 프로그램의 내용

#### 1) 기본 내용

본 프로그램을 입국 초 가족형성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부부관계 확립을 통해 상호적응도를 높여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주제 아래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그림 1〉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본 내용

준비과정을 거친다. 결혼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한 탐색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문화 부부가 자기, 가족, 결혼관 등에 대한 재탐색 과정을 거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3,4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가 가

질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요소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다문화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그 특성에 따라 접근한다. 2단계는 배우자의 생활문화를 이해하여 생활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3

단계에서는 남녀에 따른 성적차이를 파악하여 평등한 성적 개념을 가진 부부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을 전수하여 부부의 기능적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그림 1>과 같다.

## 2)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4단계 12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먼저 1단계 1회기는 ‘부부로 하나가 되요’, 2회기, ‘가족의 의미를 이해해요’, 3회기 ‘우리는 부부입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회기의 경우 교육진행에 앞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규칙 알리기와 교육 전 부부의 감정탐색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한다. 2회기에서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국가별 가족의 의미, 문화차이이해, 생활방식의 차이와 부부중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서 각국에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3회기에는 부부의 역할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건강한 부부상을 정립하도록 한다. 부부 서약서 및 낭독의 출신국 언어로 작성하였다.

2단계의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배우자의 생활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감을 형성을 위해 1회기는 ‘내 나라를 소개 합니다’ 라는 주제로 다문화퀴즈와 속담을 통해 세계의 문화 이해하기, 세계의 문화유산 만들기를 포함한다. 2회기는 음식을 통한 문화이해를 위해 각국의 음식 탐방과 직접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고 3회기에는 보드게임을 통해 경제관념을 익히고 우리 가족의 경제를 설계해보

는 시간을 가진다.

3단계에서는 1회기에서 남녀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기 위해 고정관념카드를 붙이기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2회기에서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성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성문화를 공유하고 남녀 성적 반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부부체조와 부부마사지를 통해 배우자의 성감대를 찾아내어 표시하게 한다. 3회기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참가자들과 공유하게 하고 임신에 대한 교육을 한다.

4단계의 1회에서는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참여자들에게 시도하게 한다. 2회기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방법 습득과 감정표현법, 3회기에서는 갈등을 경험할 경우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통해 건강한 부부싸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4. 프로그램 활용

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통역 보조요원의 배치 문제, 적절한 집단 규모로 구성하는 문제, 출신 국가별 집단 구성 문제, 시간과 장소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진행요원

#### (1) 통역 요원의 배치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단계에서 볼 때 ‘가족관계 형성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내밀한 소통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반드시 통역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통역사는 가능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결혼이민자를 활용하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아 보조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표 2〉 가족과 결혼  
- 1단계: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단 계	내 용		활동내용	시간
목 표	확고한 부부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킨다.			
1회기: 부부로 하나가 되요.	목 표	1.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교육목표를 공유하여 친밀감과 참여 동기를 높인다. 2. 난화 그리기를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탐색한다.		
		활동 1. 배우자 이름표 만들기	이름표 만들기	20분 휴식 10분
		활동 2. 집단규칙 설정, 서약서 작성 활동 3. 내 마음 그리기(난화작업)	서약서 작성, 난화작업	35분
2회기 : 가족의 의미를 이해해요.	목 표	1. 각 국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의미와 영역을 이해한다. 2. 나와 배우자가 가진 가족 이해의 차이를 탐색한다. 3. 부부중심 가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를 형성한다.		20분
		강의 1. 가족의 의미		20분 휴식 10분
		활동 1. 나와 친밀한 가족성원 활동 2. 우리 가족의 관계 탐색하기	내 나라 가족범위	40분
3회기 : 우리는 부부입니다.	목 표	1. 결혼 전 가졌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탐색한다. 2. 각국의 부부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3. 부부역할을 점검하고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활동 1. 샤갈과 벨라의 사랑 & 우리의 사랑		20분 휴식10 분
		활동 2. 기대했던 결혼생활의 모습을 플라주 작업하기 시청각자료 1. EBS지식채널e 418화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시청 활동 3. 부부역할 활동 4. 부부역할 서약서 쓰기 활동 5. 서약서 낭독	샤갈의 그림 보고 느낌나누 기, 서약서 작성	40분
중 결	1. 전체 활동에 대한 요약 후 간단한 느낌 나누기 2.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			10분

〈표 3〉 생활문화  
-2단계: 문화는 삶이에요.

단 계	내 용		활동내용	시간
목 표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배우자의 생활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감을 형성한다.			
1회기: 내 나라를 소개합니다.	목 표	1. 모국 문화 소개를 통해 문화적 자존감과 정체감을 높인다. 2.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화수용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진다.		
	활동	1. 다문화 퀴즈대회 교육 1. 속담으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 교육 2. 문화는 역사가 만든 귀한 유산이다.	다문화 퀴즈	35분 휴식 10분
	활동	2. 세계의 문화유산 만들기 활동 3. 선물 증정식		40분
2회기 : 세계 음식 탐방	목 표	1. 국가, 지형과 기후에 따른 음식문화 차이를 이해한다. 2. 각국의 전통음식을 요리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나눈다.		
	활동	1. 문화 앙케이트 조사 활동 2.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은? 교육 1. 각 국의 음식 탐방	각국의 음식 탐방	30분 휴식 10분
	활동	3. 1일 셰프 뽑내기		35분
3회기 : 우리 가족 채테크	목 표	1. 가족생활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2. 부부가 공통의 경제목표를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알맞은 경제계획을 설정한다.		
	활동	1. 보드게임 <모노폴리> 교육 1. 경제관념 파악하기		40분 휴식 10분
	활동	2. 우리 가족의 수입과 지출 교육 2. 가정 경제설계 활동 3. 나에게 돈 100만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드게임 우리 가족과 수입과지출 알아보기	30분
중 결	1. 전체 활동에 대한 요약 후 간단한 느낌 나누기 2.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			10분

(2) 적정 교육대상 규모

본 프로그램은 소규모 그룹(5~6쌍, 10~12명 정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부부교육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비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의 사례처럼 10쌍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전달력과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3) 출신국가별 집단 구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조요원으로서 통역사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교육이 효과가 크다.

〈표 4〉 성 차이  
-3단계: 남·여 달라요.

단 계	내 용	활동내용	시간
목 표	성에 대한 부부의 서로 다른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강화하고 출산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함으로써 행복한 성생활을 이루도록 한다.		
1회기: 우리만의 비밀대화	목 표 1. 남성과 여성이 가진 성적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확립한다. 2. 정확한 성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부부 성생활을 추구한다.		
	활동 1. 내가 가진 성 고정관념 파악하기 교육 1. 양성 평등적 시각 가지기 활동 2. 성 고정관념 깨뜨리기	고정관념 카드 붙이기	35분 휴식1 0분
	교육 2. 성에 대한 태도 점검 및 올바른 성지식 교육 활동 3. 우리끼리만 나누는 비밀대화		35분
2회기 : 몸으로 하는 대화	목 표 1. 자신이 가진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배우자의 성적 취향을 파악한다. 2.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20분
	활동 1. kiss란 무엇인가? 활동 2. 양케이트 조사 - 스킨십 교육 1. 남녀 성 반응 차이 교육 2. 성감대와 에루	부부 마사지 부부체조	40분 휴식1 0분
	활동 3. 배우자의 성감대 활동 4. 배우자가 선호하는 성적 자극 찾기 활동 5. 부부 마사지		30분
3회기 : 사랑의 열매	목 표 1. 임신의 원리를 파악하고 불임과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 2. 국가별 출산풍습을 파악하고 출산과정은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한다.		
	활동 1. 부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기	10분 휴식 10분
	교육 1. 부모로서의 시작은 임신준비부터 교육 2. 임신과 출산 교육 3. 세계의 임신과 출산 교육 4.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활동 2. 질의응답		30분
종 결	1. 전체 활동에 대한 요약 후 간단한 느낌 나누기 2.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		10분

〈표 5〉 의사소통  
-4단계: 눈을보고 내게 말해요.

단 계	내 용		활동내용	시간
목 표	배우자와 공감적 대화기법을 습득하여 갈등에 대처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1회기: 사랑에 빠진 압소와 호랑이	목 표	1. 부부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나의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고 기능적 대화 방법을 습득한다.		
	활동	1. 우리 부부의 대화 점검 시청각 자료 1. EBS지식채널e 418화 「사랑에 빠진 압소와 호랑이」 시청	동영상 시청	20분 휴식 10분
	교육	1. 대화의 원리 교육 2. 비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교육 3. 나라별 비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활동 2. 부정적 대화 부수기-박개기		40분
2회기 : 칭찬하면 배우자도 춤춘다.	목 표	1.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습득한다. 2. 배우자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20분
	활동	1. 표정에 담긴 감정 살피기 활동 2. 내가 가진 감정 주머니	감정주머니 살피기	40분 휴식 10분
	교육	1. 적극적으로 감정표현하기 교육 2. 부정적 감정 해결하기 활동 3. 칭찬하면 배우자도 춤춘다. 활동 4. 배우자의 발 씻어주기 예식		40분
3회기 : 건강한 부부싸움	목 표	1. 평소 경험하게 되는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유형을 파악한다. 2.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		
	활동	1. 부부대화 점검 활동 2. 역할극: 건강한 부부싸움	역할극	30분 휴식 10분
	교육	1. 갈등 풀어나가기 활동 3. 부부 산책하기 활동 4. 선물상자 만들기		20분
중 결	1. 전체 활동에 대한 요약 후 간단한 느낌 나누기 2.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			10분

(4) 부부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차시별 프로그램의 운영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부부 쌍이 같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참여율이 낮은 경상북도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장소의 선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농촌의 경우 농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자조모임이나 부부모임 등 자연스런 모임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강사의 섭외

한국의 다문화부부의 역사가 짧아서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들은 많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강사의 수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비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프로그램만을 운영한 강사의 경우 다문화부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오히려 다문화가족의 부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를 섭외하거나 사전에 운영기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강사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가족관계형성기 다문화가족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이 가족단위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별적인 적용, 다문화가족만의 특수성의 배제, 단기적 프로그램의 한계점이 있었던 바,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보편성과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언어적, 체험중심 프로그램, 회기별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경북

지역 거주하는 여성26명, 남성 13명으로 총 39명(포항 1명, 구미 5명, 경산 2명, 상주 4명, 문경 4명, 칠곡 7명, 영천 2명, 예천 8명, 의성1명, 청도 3명, 영덕 1명, 울진 1명)의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4단계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인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해요에서는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자기, 배우자, 가족, 결혼관에 대한 탐색 과정을 담았고 3회기의 주제는 “1. 부부가 하나가 되요” “2. 가족의 의미를 이해해요.” “3. 우리는 부부입니다.” 로 구성하여 스킨십을 가미한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단계에서는 문화는 삶이에요. 문화가 다른 부부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1. 내 나라를 소개 합니다.” “2. 세계 음식 탐방” “3. 우리가족재테크” 의 3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3단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 중에 특히 성적인 차이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 우리만의 비밀대화” “2. 몸으로 하는 대화” “3. 사랑의 열매”라는 3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부부간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 실습으로 “1.사랑에 빠진 암소와 호랑이” “2. 칭찬하면 배우자도 춤춘다” “3. 건강한 부부 싸움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부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였다.

둘째, 본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다문화가족의 기초조사에 근거한 프로그램, 회기별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현장 사용 가능한 워크 시트(work sheet)를 탑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역요원의 배

치, 5-6쌍 정도의 교육대상 유지, 출신국가별 집단 구성, 부부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차시별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강사의 섭외가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안정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해체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부부관계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에게는 교육의 실효성과 프로그램 실행 시 한계가 보여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부 중 여성 26명과 남성 13명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초기형성기에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아내와 남편의 기존의 사용하여 왔던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다른 상황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비언어적이고 체험의 비중을 높여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하는 교육자 역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강사 풀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가정 내의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을 교육하는 부부프로그램의 교육자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관련 교육자나 실무자들이 한국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인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부부 교육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부터 3년 사이의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시기의 가족관계 형성기 부부를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녀양육기 이후의 부부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생애주기의 부부대상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역할 등을 포함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 주민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가별 문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바,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국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고정애(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권수정·전영주(2007). ENRICH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247-275.
- 3) 김성희(1996). 인지-행동적 부부관계촉진 훈련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29(1), 205-104.
- 4) 김수연·이정희·남미경·임경이(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7.
- 5) 김승권·김유경·조애자·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6)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8) 김혜숙·이은정(2011).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12(4), 1193-1210.
- 9) 김희진(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4), 877-906.
- 10) 박형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강기정(201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103-138.
- 12)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13) \_\_\_\_\_(2008b).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보건복지가족부.
- 14)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진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15) 소병숙·정혜정(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31-151.
- 16) 손진아·백경임(2008). 경주시 결혼이민자가족 부부프로그램의 효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주연구, 17(2), 5-34.
- 1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1). 유네스코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속담여행. 서울 : 대교
- 18) 양명숙·이혜선(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2(2), 431-445.
- 19) 유명숙(2010). 임파워먼트 모델에 근거한 다문화 부부옹호 프로그램이 다문화부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및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2), 145-160.
- 20) 이명자(2009).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1)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가족과 문화, 19(1), 29-60.
- 22) 이은희·구정화(2009). 가족탄력성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61-80.
- 23) 이혜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4) 여성가족부(2010a).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25) \_\_\_\_\_(2010b). 다문화가족 부모성장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26) 장덕희·이경은(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영향. 농촌사회, 21(2), 103-139.
- 27)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적 요인-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28) 최정숙(2008). 결혼초기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 103-152.
- 29) 통계청(2011).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1. 11. 3.
- 30) Claire Ellis(1995). 김양희(2005). 지구촌 문화충격 탈출기 Curious-베트남. 서울 : 휘슬러.
- 31) Hovey, J.D. & Magana, C.(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119-131.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8월 15일